

“전통문화 진흥, 함께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JTV 전주방송, 업무협약... 관련 콘텐츠 개발 등 협력키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JTV 전주방송이 한지, 한식, 공예, 놀이 등 전통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3일 전주한옥마을을 우리 놀이터 마루담에서 김선태 원장과 한명규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송을 통해 이를 소개하는 과정을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 및 방송을 공유·협력한다. 상호 전통문화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활용하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서 협력한다.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전통문화의 진흥과 확산에 매진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협력할 기회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전당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JTV전주방송이 힘을 합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전통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3일 전주한옥마을의 '우리놀이터 마루담'에서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이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안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5월까지 오색강정·입욕제·단오부채 만들기 등 진행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이 3월 31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지역의 공방이나 문화예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진안의 청정자연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3월 31일 오후 7시에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오색강정 만들기'가 진행되며, 4월 28일 오후 7시에 청정진안에서 휴식을 위한 '입욕제 만들기'가 운영된다. 또한 5월 26일 오후 7시에는 단오(음5.5)를 맞이하여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단오부채 만들기'가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진안군민 누구나 전화(063-430-8086)로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당 신청인원 10명으로 신청인원을 제한하여 접수할 예정으로, 마스크 착용과 방문대장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박물관이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심야산책(冊), 내 인생의 작가'

전주시, 아중·쪽구름·건지도서관서 26일~11월 26일 작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매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일 문화가 있는 날 저녁 시간을 활용해 아중·쪽구름·건지도서관에서 '심야산책(冊), 내 인생의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책으로만 만난 작가들을 초청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무료로 진행된다.

먼저 아중도서관에서는 5월까지 3회의 강연이 펼쳐진다. 오는 26일에는 백원달 작가가 '인생의 속제'를 주제로 첫 강연을 한다. 4월 28일에는 권오준 작가의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5월 26일에는 황영미 작가의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기'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또 쪽구름도서관에서는 ▲김동식 작가(6월) ▲백영옥 작가(7월) ▲김신희 작가(8월)

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고, 건지도서관에서는 ▲김나연 작가(9월) ▲김경희 작가(10월) ▲김신지 작가(11월)의 초청 강연을 갖는다.

향후 시는 지역서점이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심야산책(冊), 저녁이 있는 책방'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지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명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저녁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야산책(冊), 내 인생의 작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는 각 도서관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시장길 상인 사진 전시회 '인생스물넷컷'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 27일까지 진행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은 오는 27일까지 군산공설시장 1층 중앙홀에서 구시장길 상인들의 사진 전시회 '인생스물넷컷'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구시장길 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전시회는 상인 7명이 구시장길에 담긴 이야기들을 필름 카메라에 담아 전시하는 행사다. 이 전시회는 구시장길이 단지 넓고 오래된 공간이 아닌 추억과 일상을 공유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카드뉴스 및 영상을 오프라인에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 준비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사진 작품에 대한 영상이 재생되며 상인들의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063-442-79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